

# 출장보고서

- 출장목적: KDI - Brookings 연구소 공동연구과제 협의 및 글로벌 경제전망 분석 관계기관 방문
- 출장기간: 2018년 6월 24일~30일
- 출 장 지: 미국 워싱턴, 뉴욕
- 출 장 자: 김현욱(KDI)

## < Brookings 연구소와의 공동연구 진행 협의 주요 내용 >

- Brookings 연구소 Zia Qureshi 박사와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에 협의하였음.

### (첫번째 1.5년 Project 일정 관련)

- 첫번째 컨퍼런스는 2019년 1월에 개최
  - 2019년 ASSA Meeting이 1월 4일(금)~6일(일)이므로 KDI-Brookings Conference를 1월 8일(화) 또는 9일(수)에 개최
  - 원장님을 비롯한 KDI 채용팀은 Atlanta에서 1월 7일 (목) Washington DC 이동 후에 다음날 또는 하루 쉬고 컨퍼런스를 하게 됨.
  - Brookings 측에서는 컨퍼런스 다음날에 논문 저자들간의 반일 워크샵 개최 희망
- 논문은 2019년 2월말까지 완성해서 취합
  - 3월부터는 Peer Review Process를 진행하며, 그 이후 Brookings Press에 5월말까지는 수정된 최종 논문을 전달해야 그 다음에 약 4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을 거쳐 9월말에 발간될 수 있음.
- Final Event(Launch Conference)는 2019년 9월에 개최

## (Overview Chapter 관련)

- Overview Chapter는 Co-editor들이 합작하며, 논문들의 Summary보다 Higher Level Message 필요

## (연구 내용 - New Growth Agenda)

- 이미 여러 시각에서 많은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음. 특히 생산함수의 주요 요소인 A, K, L 간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이 많음.
  - 예를 들어, 기술진보가 노동의 수요를 변화시키면서 생산함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,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을 위한 투자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음.
  - 또한 자본 중에서도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.
- 이러한 많은 논의와 연구들은 Productivity Paradox 연구로 집약될 수 있는데, 이러한 변화들의 동인은 결국 기술진보의 진행 속도와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음.
  - 즉, 기술진보가 성장의 특성(nature of growth)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임.
- Productivity 외에도 Inclusive Growth 또는 Sustainability of Growth (기후변화의 영향 등) 와 같은 이슈들도 역시 중요함.
- 또한 논의의 범위를 national dimension 에서 더욱 넓혀서 international dimension 으로 넓혀서 볼 수도 있는데, Prof. Dani Rodrik 의 연구들처럼 international context of growth도 변하고 있기 때문임.
  - 이러한 변화의 동인은 기술진보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(정치적) 차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.
- 결국 이러한 많은 논의들 가운데, 뭔가 새로운 것(newness)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.
  - 완전히 새로운 이슈를 다룬다기보다 같은 이슈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함.

### (논문의 크기)

- 챗터당 (그림, 표, 참고문헌 등을 제외하고) 10,000 단어 정도를 목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음.
  - MS-Word로 Single-Space로 하면 약 20-25 페이지 정도

### (연구 내용의 조율 및 학습을 위한 소통)

- KDI 측 저자들 워크숍 (authors workshop) 시에 Brookings 연구진들이 Tele-conference 등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임.

### (Brookings 측 연구)

- 아직 연구내용과 연구자들에 대한 섭외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까지 2명의 연구자가 Commit 했고 2명의 연구자들에게는 Offer만 나간 상태임.
- Dr. Ayhan Kose (Brookings의 Non-resident Senior Fellow이면서 현재 World Bank의 Director of the Development Prospects Group) 참여는 확정되었다고 함.
  - World Bank의 global macroeconomic forecasts 책임자로서 Global Economic Prospects 발간을 담당
  - 글로벌 잠재성장률에 관해 논문을 쓸 예정이라고 하는데, 구체적인 연구내용에 있어서 한국 경제에 보다 연결성이 높은 내용들을 다루어 달라고 했음.
- Dr. Brahim Coulibaly (Brookings의 Director of the Africa Growth Initiative 이면서, 작년 초까지는 FRB에서 Chief of Emerging Market Economies Section 역임한 거시경제 및 국제금융 전문가라고 함.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2005년에 박사학위 받음) 참여도 확정됨.
  - Global Configuration of Comparative Advantage를 통해 신흥국의 Premature Industrialization의 문제점과 영향을 본다고 함.
- Dr. Warwick McKibbin (Brookings의 Non-resident Senior Fellow이면서

현재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. 기후변화 등 연구로 유명하지만, Macroeconomic Modelling (또는 Macroeconomic Research based on Model) 전문가로 인정받는 분이라고 함) 의 경우는 참여 약속만 받은 상황이라고 함.

- Global Imbalance and Sustainable Growth 등의 분야에 많은 연구가 있음.

- Dr. Martin Baily (Brookings의 Bernard L. Schwartz Chair in Economic Policy Development and a Senior Fellow in Economic Studies) 의 경우, 아직 응답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고 함.

## < IMF 및 투자은행 등 국제금융시장 전문가 면담 주요 내용 >

### (미국의 사회문제와 연계된 보호무역주의)

□ 미국 경제가 유연한 시장구조, 기술선도국 지위 등 기초여건을 바탕으로 9년째 경기상승기를 유지하고 있으나, 실제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약화

- 중산층 소득 정체: 1979년 이후 1인당 실질소득은 80% 늘어났지만, 정규직 노동자의 급여는 겨우 7%(실질기준) 증가
- 계층간 이동성 저하: 경제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모세대보다 감소되었는데, 이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심화, 계급구조 고착화 등 악순환 고리를 촉발
- 취약계층 증가: 복지수준 하락과 더불어 약물, 음주, 자살 등으로 중년 백인 노동계층의 사망률이 급격히 악화
- 정치와 제도에 대한 불신: 적어도 1970년대 이후 미국인들 사이에는 정부, 특히 연방정부의 능력과 진정성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신이 팽배

□ 그간 경제학자를 비롯한 정책당국자들은 이 같은 사회변화를 적기에 인

식하고 대응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대중정서가 지난 대선에서의 Trump 대통령 당선으로 표출

- 사회경제적 이슈를 다루는 데는 증거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지만, 최근 정부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.

□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나타났듯이, 현재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외경제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도 미국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무관하지 않음.

- 이러한 관점과 Trump 대통령의 성향 등을 감안할 때,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이 가시화되고 심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, 글로벌 성장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#### (미국 등 선진국 투자은행들의 한국 금리 전망)

□ 최근인 6월 중순 이후 진행되었던 원/달러 환율의 급등과 주가 하락 등 외국인 자본 이탈 징후는 투자은행의 포트폴리오 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단기적인 현상으로 보임.

-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작년 하반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~2차례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면서, 이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해 왔음.

- 그러나, 최근 한국의 고용 및 경기 지표 등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정도의 시그널이 감지되지 못함에 따라 기존에 시도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게 된 것임.

- 이러한 과정에서 단기간에 원/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현상이 발생

□ 결론적으로, 최근 우리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

한국 경제가 아르헨티나 등 위기 가능 신흥국과 유사하다는 우려보다는 투자은행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기인한 단기적 변동의 성격이 강함.

- 물론 한국경제에 대한 시각이 덜 낙관적으로 변한 것은 사실이나,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당국자들이 기준금리 등과 관련된 발언에 보다 신중하여 금융시장의 교란 및 변동성을 불필요하게 높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.